



OVERWATCH[®]
DEADLOCK
REBELS



제1장
LYNDSAY ELY 소설

★ 제 1 장

문제라는 건, 일단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문제를 피해 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달아나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맞서 싸워 볼 수도 있었다. 사실 보니 형제들과 얽혔을 때 애쉬는 그렇게 맞서 싸웠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문제는 언제나 다시 찾아왔다.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엘리자베스.” 카슨 보안관의 수염에는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보안관의 아침 식사가 남긴 부스러기 몇 개가 자꾸 그녀의 눈길을 끌어 탄생각을 하게 했다. “이제는 그만 좀 보면 안 되겠냐?”

“말씀드렸잖아요...” 애쉬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으로 실크 스커트를 매만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겨진 곳 하나 없던 스커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주글주글해지고 여기저기피로 얼룩져 있었다. 물론 그녀의 피는 아니었다. “정당방위였어요. 그 녀석들이 절 공격한 거라니까요.”

보안관은 한숨을 쉬었다. 부스러기 몇 개가 수염을 떠나 애쉬의 기록이 표시된 화면에 떨어졌다. “그 녀석들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

“뭐,” 그녀는 보안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깡패 녀석들은 거짓말쟁이니까요.”

하지만 보안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런 생각이 음식 부스러기처럼 똑똑히 드러나 있었다. 물론 그런 냉소적인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순식간에 최악의 날로 바뀌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
사실 시작은 정말 좋았다.

애쉬는 처음으로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동이 트자마자 눈을 떴다. 보통 그녀의 하루는 가족의 로봇 집사인 B.O.B.이 집에서 나서야 할 시간 5분 전에 이불을 걷어치우는 것부터 시작되곤 했다. 지각이 있는 최첨단 옴닉 B.O.B.은 애쉬가 기억하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곁에서 친구이자 경호원 역할을 해 주었다. 물론 거기에는 아침마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게 깨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애쉬도 B.O.B.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했다. 졸업식이었다. 그건 이제 애쉬가 그 지루하게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학교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졸업장을 건네는 월릭 교장 선생님의 족제비 같은 얼굴을 득의양양하게 쳐다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단상을 가로지르며 부모님의 얼굴에서도 보고 싶은 바로 그 표정 말이다.

애쉬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을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빗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문의 소유였던 리드 로즈 저택의 계단을 한 번에 두 개씩 뛰어 내려와 보통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도, 재무 보고서와 매출액을 끝없이 투영하는 홀로비드도, 부모님도 없었다.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새하얀 장미가 핀 화병과 거기 기대어 놓은 카드만 놓여 있었다.

축하한다, 엘리자베스! 정말 자랑스럽구나!

카드에 적힌 말은 따스했지만 그걸 읽는 애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식당 전체에서 색이 빠져나가 주위가 하얀 장미꽃 같은 무채색이 되어 버렸다.

오늘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미안하지만 아주 중요한 합병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게 됐구나. 그래도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을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이걸 과거의 실수와 문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가문의 유산을 받아들이 좋은 기회란다.

카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네. 애쉬는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농담하는 것 같았다. 하나도 재미없는 농담이었다. 정말 자랑스럽다면 왜 함께해 주지 않는 걸까? 엄마 아빠는 어째서 또다시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둔 걸까?

가문의 유산. 웃기지도 않는 얘기다. 방 건너편에서 몇 대 이전의 할머니인 칼레도니아의 초상화가 공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발리스트 무기 회사를 처음으로 설립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무기 거래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칼레도니아였다. 헬릭스나 비슈카르, 하이드 글로벌 등 더 막강한 기업의 경영자들과 어울리며 자기들과는 별 관계도 없는 성공이 벌어들인 명성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애쉬의 부모님이 일궈낸 회사가 아니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은 운이 좋았다. 아발리스트는 맞춤 제작되는 값비싼 고급 소총을 제작하며 오랫동안 제법 훌륭한 사업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때 옴닉 사태가 발발하고, 군부는 회사를 주목했다. 아발리스트의 AA92 소총은 탄창 용량이 크고 포구 속력이 빠르다는 이유로 군대의 표준 지급품으로 선정되었다. 그 계약과 함께 회사의 고유한 소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은 확실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

특히 먼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면 더욱더 그랬다.

대도시들은 분명히 전쟁의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애쉬 가족의 고향이자 아발리스트의 본사가 위치한 벨레이는 작고 외진 공동체였다. 옴닉 사태 이전에만 해도 옴닉이 십여 기 정도밖에 없는 곳이었다. 벨레이는 전쟁 기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공장은 쉬지 않고 무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이제 오버워치 덕분에 옴닉 사태도 막을 내렸다. 그 바람에 무기 수요가 감소했고, 벨레이에 있는 아발리스트의 공장 하나도 이미 문을 닫았다. 애쉬의 부모님은 회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영해 온 공동체보다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상 거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런 게 무슨 가문의 유산이란 말인가?

초상화 아래에는 가문의 가보인 바이퍼 소총이 있었다. 아발리스트의 초기 제품 중 하나로, 무기 시장의 역사에 회사의 이름을 각인한 작품이었다. 백 년이 넘는 총이었지만 여전히 새것 같고 사격도 정확했다. 혁신, 품질, 칼레도니아가 추구했던 유산은 그런 것이었다. 아발리스트가 절대 뒤쳐지지 않게 하고, 가장 뛰어나고 영민한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언제나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귀하게 대우해 주었다. 그렇다고 칼레도니아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라도 자기를 부를 때는 반드시 미즈 애쉬라는 호칭을 쓰게 했다는 말도 있었다. 존경심을 표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애쉬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것만큼 그녀도 칼레도니아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성으로 불리는 걸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애쉬는 덜컹거리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식당 문간에는 B.O.B.이 거대한 금속 손으로 섬세하게 쟁반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애쉬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인 시럽이 넘쳐흐르는 와플과 아주 바삭하게 구운 두툽한 베이컨이 놓여 있었다.

시큼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아?” 그녀가 따져 물었다.

옴닉은 그저 눈만 깜빡인 후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애쉬는 문득 죄책감을 느꼈다. B.O.B.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다. 사실 그녀의 삶에서 믿을 만한 거라고는 B.O.B.뿐이었다. 물론, 전쟁 중에 그가 사라졌던 때는 예외였다. 모든 옴닉과 마찬가지로, 옴닉 사태 당시 B.O.B.은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애쉬는 로봇 집사를 다신 못 볼 거라고 생각했다. 막상 그 옴닉이 곁에 없으니 얼마나 그리움이 느껴지는지 애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B.O.B.은 리드 로즈로 돌아왔다. 새롭게 지성을 얻고... 애쉬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B.O.B.은 애쉬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친구였다. 그리고 그 후로 줄곧 그녀의 곁을 지켜 주었다.

부모님과과는 달랐다.

“작별 인사라도 했어야 하잖아.” 마지막 말에 왓지 목이 메어 와 그녀는 온몸을 뻗뻗하게 긴장했다. 부모님만큼 자기 자신도 싫어졌다. 부모님이 애쉬를 혼자 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이 영지에는 점차 커져만 가는 고독의 메아리만 가득했다. B.O.B.이 곁에 없는 동안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애쉬가 저지른 말썽을 못마땅해하는 부모님의 잔뜩 긴장되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손안의 카드를 이리저리 돌렸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오늘은 달랐다. 졸업은 부모님께도 분명 의미 있는 행사였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딸이 그냥 말썽꾸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딸이 학교의 해커를 설득해서 성적을 모두 A로 변경하려다 붙잡힌 문제이나 과학실에서 새총 사격 실력을 뽐내다가 학교 전체를 폐쇄하고 오염 제거 작업을 하게 만든 소녀로만 기억되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애쉬가 바랐던 것처럼, 딸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도 있었다. 애쉬는 반드시 졸업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졸업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걸 믿었던 애쉬가 바보였다.

탁자 위에 놓인 장미는 아침 햇살을 받아 표적을 겨눈 조준경처럼 반짝였다. 지금 애쉬가 부모님이 남긴 화해의 상징에 하고 싶은 것은 그 선물이 꽃잎과 유리 결정을 분수처럼 흩뿌리며 폭발하는 모습을 조준경으로 지켜보는 일이었다. 바이퍼가 장전되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쉬는 카드를 벽난로 선반 위에 놓고는 쿵쿵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갔다. 애쉬가 B.O.B.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그가 손을 뻗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애쉬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 멍청한 졸업식에는 참석할 거니까!”

B.O.B.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아니, 차는 가져올 필요 없어. 그냥... 혼자 걸어갈게.” 옴닉은 경고하듯 한 손을 들어 올렸다.

“알아, 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애쉬는 지금 어떤 규칙도 따를 기분이 아니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가서 내 금 팔찌 좀 찾아 줄래? 그거 있잖아, 작년에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거. 차고 나온다는 걸 깜빡 잊었어.”

B.O.B.은 고분고분하게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보통 집사는 늘 애쉬를 학교까지 호위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 애쉬는 누군가와 같이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악의 없는 거짓말로 B.O.B.을 속여야 했다. 그가 애쉬의 방에 팔찌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챌 때쯤에(애쉬의 어머니가 몇 달 전 팔찌를 빌려 가서는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멀리까지 가 있을 터였다.



애쉬는 강을 따라 마을로 가는 길을 걸었다. 예상했던 대로 오리 몇 마리와 가끔씩 하늘을 지나가는 경비 드론을 제외하면 길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고요한 고독을 즐기면서도 씩씩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편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마음을 달랠 수도 없었다. 막강한 애쉬 가문의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동안 또래들은 그녀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게다가 최근 아발리스트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반 친구들의 가족 중에도 직장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 바람에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녀를 피하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반감을 표출했고, 운동장에서 다투는 일도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해졌다. 그녀가 학교를 탈출할 수 있는 졸업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다.

그래도 강변을 따라 줄지어 심어 놓은 장식용 나무들 아래를 걸어가다 보니 호흡이 조금 편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나마 영지의 숨 막히는 고독을 잊고 다른 곳에서 누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척할 수 있었다.

“이런, 이런.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있었네?” 애쉬는 우뚝 멈춰 섰다. 차분했던 기분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돌아섰다.

누가 따라오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디와 지미 보니였다. 학교 1년 후배였지만, 벨레이에서 두 사람보다 애쉬와 그녀의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두 사람의 부모 모두 아발리스트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번에 공장이 폐쇄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되고 말았다.

“우와, 조디.” 지미가 키들키들 웃었다. “아주 희귀한 빨간 눈 공작새 같은데. 이상하다, 이 새는 보통 커다랗고 덜컹거리는 집사 로봇과 함께 있던데.”

끝내주는군. 지금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가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냥 가 줄래? 지금은 그럴 기분 아니야.”

“괜히 까탈스럽게 굴 필요 없어.” 조디가 썩 맘에 들지 않는 짓궂은 미소를 동행과 교환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애쉬보다 어리긴 했지만 체격은 훨씬 컸다. “어차피 오늘 졸업하잖아? 축하한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봐. 널 졸업시키려고 부모님이 대체 얼마를 기부한 거야?”

애쉬는 발끈했지만 서늘한 눈빛을 유지했다. “글쎄. 그래도 월릭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늘 멍청하게 제 앞가림도 못 하는 너희 둘을 졸업시키도록 하는 것보다야 훨씬 적었겠지.”

보니 형제의 얼굴이 똑같이 어두워졌다.

“지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본데.” 지미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애쉬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어휴, 애들아.” 그녀는 참을성 있게 비웃음을 띤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아무리 흠을 퍼먹을 만큼 가난해도 너희한테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 시점에 해야 할 말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짜증이 가득해서, 보니 형제가 굳이 시비를 걸어 보겠다면 막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조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이 섰다. “흠을 퍼먹는다 이거지?” 그는 아래로 손을 뻗어 흠을 한 줌 쥐었다. “어디 한번 진짜 흠 맛 좀 보여줄까? 어때, 지미? 우리 공작새가 조금 못난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게 해 주자고.”

애쉬는 웃음을 거두지 않고 몸을 똑바로 폈다. 2대1이라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지미가 앞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렸다. 애쉬는 지미를 걷어찬 후 춤을 추듯 상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발에 정강이를 맞은 지미는 짹 소리를 지르며 풀밭에 나뒹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뚝을 붙잡았다. 지미보다는 날쌔 조디가 그녀를 붙잡아 핵 잡아당겼다. 짹 꺼안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굽혀 어깨로 그의 복부를 들이받았다. 조디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몸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온 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옆에서 지미가 버둥거리며 일어섰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끝났어?” 애쉬는 침을 뱉었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

거친 포효와 함께 지미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한 번, 또 한 번 피했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거친 공격이었지만 제대로 맞으면 충격이 꽤 클 것 같았다. 하지만 애쉬는 주먹을 피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았다.

물론 주먹을 정확히 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에게 빈틈이 생기길 기다렸고-

주먹을 빠르게 내질러 그의 입을 때렸다. 지미는 무릎을 꿇었다. 입술 가득 피가 쏟아져 나왔다.

“너-” 이번엔 조디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완전히 못난 얼굴로 만들어 주겠어.” 갑자기 그의 손에서 은빛 섬광이 나타났다.

칼이었다.

애쉬는 긴장한 채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소년들에게 미끼를 던진 게 실수였는지도 몰랐다. 몸싸움이야 문제없다고 해도 이걸 달랐다.

하지만 조디는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두 눈을 번들거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옆으로 피하며 무기를 든 손목을 붙잡는 동시에 팔꿈치를 위로 거세게 휘둘렀다. 공격은 만족스럽게 와지끈 소리를 내며 그의 코에 적중했다. 조디도 지미처럼 땅에 뒹굴고, 칼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애쉬는 그 칼을 집어 들고 앞으로 내보이며 두 사람에게서 멀어졌다.

그때 사이렌이 울렸다. 벨레이 경찰의 호버바이크 두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나타났다. 지나가던 경찰 드론이 그들의 실랑이를 포착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쉬가 뒤를 돌아보자 세 번째 경찰이 이미 뒤쪽에서 있었다.

“끔찍 마!” 부 보안관이 소총으로 그녀를 겨누는 채 호버바이크에서 내렸다.

애쉬는 나직이 욕설을 뱉으며 칼을 버렸다. 결국 졸업식에 갈 일은 없어졌다.



“우리 부 보안관이 네가 무기를 들고 있는 걸 봤단 말이지.” 카슨 보안관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게다가 두 녀석 모두 피를 흘리면서 네가 공격했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애쉬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최선을 다해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었다. 거짓말의 대가로 보니 형제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고 있으려니 그것도 쉽지 않았다. “잠깐 제 말 좀-”

“그만!” 보안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넌 항상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구나, 엘리자베스. 너희 집안을 방패막이로 삼으면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애쉬는 콧방귀를 끼었다. “그렇지 않-”

“이번엔 그렇겐 안 될 거다.” 그는 말을 뱉었다. “일어나!” “뭐라고요?”

보안관은 애쉬의 팔을 붙잡아 벌떡 일으켜 세웠다. “저기요!”

“혼자서 충분히 생각하다 보면 너도 겸손이라는 걸 배울 수 있겠지.” 보안관은 사무실에서 애쉬를 끌고 나갔고,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찰서의 어둡고 퀴퀴한 통로로 데려갔다.

유치장이었다.

“아, 이러지 마세요, 보안관님.” 애쉬가 애원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B.O.B.에게 연락해 주세요. 금방 올 거니-”

“그래, 나도 안다.” 카슨 보안관은 감방 하나의 자물쇠를 풀고는 애쉬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한쪽 입꼬리를 끌어 올렸다. “이번에도 너희 부모는 돈으로 널 구출하겠지. 그 사람들이 마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무도 거기

반발하지 못할 테고. 하지만 이번에 난 급할 게 없어. 게다가 넌 미성년자니까 보석금을 지불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다. 그래도 그 전에 네게 감방 안을 구경할 기회를 줘야겠구나.”

창살문이 쿵 닫혔다.

“잠깐만요-” 애쉬는 멀어지는 보안관을 보며 침착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젠장, 보안관님, 이쪽으로 와 봐요!”

하지만 그는 애쉬의 말을 무시했다. 그가 사라지자 애쉬는 완전히 풀이 죽어 감옥 창살에 매달렸다. 보안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듣지 않았다. 애쉬의 부모님을 비롯한 이 버림받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 보안관은 애쉬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의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버릇없는 후계자. 말썽꾸러기. 그들의 자부심을 위협하는 존재.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소용없었다.

“와...”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잣집 따님치고는 배짱이 두둑한데.”

그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뭐라고?”

옆 감방에는 멀썩한 남자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벽에 붙은 벤치에 다리를 올리고 느긋하게 기대앉아 있었다. “부잣집 따님이라고. 화려한 옷을 보니 맞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는 킁킁 웃었다. “감방 안을 구경하기라도 원한 거야?”

애쉬가 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걸 원한 적 없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상대가 모자를 들어 올리자 짓궂은 미소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갈색 눈동자를 지닌 청년이 나타났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잔뜩 부풀어 있었다. “재미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그래?” 애쉬는 콧방귀를 끼었다. “멍든 눈을 보니 그쪽이 있을 곳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사람은 똑바로 일어서 손가락으로 상처를 가리켰다. “친구 하나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다른 농장 일꾼과 조금 다투어. 내가 끼어들어 중재를 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친구는 전과가 좀 있었거든.”

어느새 언짢은 기분은 사라지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신 맞아 준 걸로도 모자라 대신 체포되기까지 했다는 거야?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네. 생각보다 더 멍청한 모양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리언은 친구거든. 요즘은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 청년은 느릿느릿 다부진 몸을 일으켰다. “넌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가 여기 들어온 건데?”

“똑같은 얘기야.” 애쉬는 그를 다시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상대가 그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더 어린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다. “사소한 오해.”

“그러면 우리에게겐 공통점이 있는 셈이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철창을 향해 다가와 한 손을 내밀었다.

“이름이...?”

그녀는 주저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문제라는 건,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 눈앞에 있는 게 문제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보니 형제와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꼭 착한 강아지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애쉬라고 불러. 넌?”

“제시라고 해.” 그의 미소가 커졌다. “제시 맥크리.”



